

# 검은 물, 하얀 불

강유정 | 서양화전공 박사학위 청구전 | 2022.11.15 - 11.18

강유정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와 미술사학을 공부하였다.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개인전 <에스키스 심포니> (상업화랑, 2022), <불꽃과 파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발현 發玄> (성남큐브미술관, 2019), 단체전 <유연한 풍경> (성남큐브미술관, 2022), <검은 회화> (이안아트스페이스, 2021), <난립예정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화자가 문장을 말한 시간> (충무아트센터, 2019), <상념의 궁전> (김세중미술관, 2019), <제3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8), <그림에도 불구하고 X>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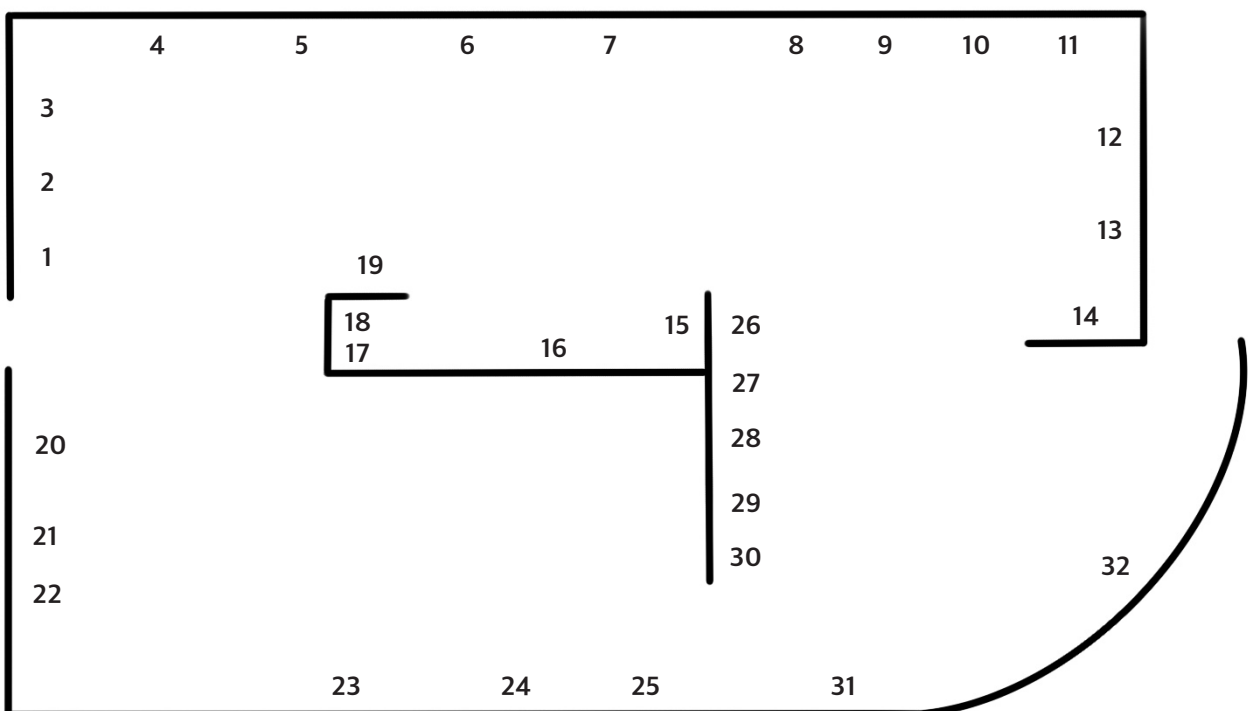
이 밖에도 현대차-정몽구재단 ONSO ARTIST 선정 (202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4기 입주작가 선정 (2020-2021), 이화여자대학교 우수학위논문상 (2018) 등의 이력이 있다.

반복은 계절이 돌아오고, 사라졌던 별자리가 나타나는 자연의 질서이다. 자연은 반복하는 가운데 순환한다. 들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싹이 돋고, 작은 물방울이 비가 되어 바다에 이르듯, 순환 속에서 무한하다. 나에게 '반복의 풍경'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장(場)이다. 풍경을 바라보고 그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탐구하고 존재를 확인한다. 나아가 그림이 된 풍경을 다시 바라보고 침잠하며, 현실 너머 초월의 세계를 상상한다.

나는 순환하는 세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불과 물에 주목한다. 타오르는 불꽃과 흐르는 바다를 보며 자연의 순환을 떠올린다. 두 원소는 오랫동안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거와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내러티브이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이다. 이를 나타내듯 다양한 예술 작품에 신화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곤 한다.

반복의 풍경에서 불과 물은 서로 대립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의 반복과 순환을 암시한다. 바다와 오름, 대자연과 일상, 지상과 하늘, 그리고 풍경 속 빛과 그림자, 불과 물이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대척이기보다는, 서로 중첩되며 조화를 이룬다. 밝음과 어두움,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초월의 풍경이다.

풍경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하얀 불이 피어난다. 풍경의 검은색은 세계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드러낸다. 그것은 풍경의 색채이자 풍경을 표현하기 위한 색이다. 검은색은 소묘와 흑백사진처럼 다양한 매체의 표현을 연상시키며, 회화적 재현의 의미를 배가한다. 또한, 검은색은 특유의 모호함과 풍부한 의미로 풍경에 다층적 의미를 형성한다. 과거의 사건을 암시하는 동시에 풍경 위로 더욱 오랜 과거와 신화를 중첩함으로써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 검은 물, 하얀 불

강 유 정 | 서양화전공 박사학위 청구전 | 2022.11.15 - 11.18

- 1 용의 머리 (The Dragonhead), 2018, oil on canvas, 60x60cm ea.
- 2 송악 I-II (Songak I-II), 2018, oil on canvas, 33x33cm ea.
- 3 이름 없는 바다 (Nameless Sea), 2018, oil on canvas 53x65cm
  
- 4 상모리 131 I-II (Sangmo-ri 131 I-II), 2018, oil on canvas, 80.3x116.8cm ea.
- 5 검은 웅덩이 II-III (Black Pool II-III), 2019, oil on canvas, 46x53cm ea.
- 6 산방산 (Sangbansan), 2018, oil on raw canvas, 192x165cm
- 7 송악산 (Songaksan), 2018, oil on raw canvas, 192x165cm
- 8 들, 불 II-III (Wild, Fire II-III), 2020, oil on canvas, 65x65cm ea.
- 9 물, 불 I-II (Water, Fire I-II), 2020, oil on canvas, 65x65cm ea.
- 10 흰 너울 I-II (White Waves I-II), 2020, oil on canvas, 80x80cm ea.
- 11 파도, 구름, (Wave, Cloud), 2020, oil on canvas, 91x91cm
- 12 흰 수평선 I-III (The White Horizon I-III), 2020, oil on canvas, 80x100cm ea.
- 13 바다의 선 I-II (The White Line I-II), 2020, oil on canvas, 45.5x45.5cm ea.
- 14 불꽃과 파도 (Fire and Waves), 2020, oil on canvas, 60.5x72.5cm
  
- 15 아부오름 (Abu-oreum), 2018, oil on canvas, 80.3x116.8cm
- 16 들, 불, 풀, (Wile, Fire, Bush), 2019, oil on raw canvas, 162x251cm
- 17 진지, 굴 (Camp, Cave), 2018, oil on canvas, 33.4x24.2cm
- 18 프론트게이트 (Frontgate), 2018, oil on canvas, 33.4x24.2cm
  
- 19 오름끝 I-II (Oreum, Edge I-II), 2019, oil on canvas, 80x80cm ea.
- 20 백화립 (The Eternal White), 2019, oil on canvas, 80.3x100cm
- 21 흰 뿔 II (The White Cone II), 2019, oil on canvas, 80.3x100cm
- 22 흰 뿔 I (The White Cone I), 2019, oil on canvas, 73.5x52.5cm
- 23 야행 II (The Nightwalk II), 2019, oil on canvas, 130.3x193.9cm
- 24 야행 I (The Nightwalk I), 2019, oil on canvas, 97x260cm
- 25 윤슬 I (White Ripples I), 2019, oil on canvas, 80x80cm
  
- 26 불티, 반짝임, 연기 (Sparks, Sparkles, Smoke), 2020, oil on canvas, 33x33cm ea.
  
- 27 밤의 형상들 II-III (Shapes of Night II-III), 2019, oil on canvas, 38x45cm ea.
- 28 흰 공 (The White Ball), 2020, oil on canvas, 72.7x90cm
- 29 빈 밤 I (Empty Night I), 2019, oil on canvas, 31x41cm
- 30 밤의 그늘 I-II (Shades of Night I-II), 2019, oil on canvas, 112.1x112.1cm
  
- 31 우리가 불에서 잃어버린 것들 (Things We Lost in the Fire), 2022, oil on canvas, 162x130cm
- 32 스파클라 (Sparkler), 2021, oil on canvas, 22x22cm ea.
- 33 물의 질감 (Texture of Water), 2022, oil on canvas, 27.3x18.5cm ea.
- 34 물의 모양 II (Shape of Water II), 2022, oil on canvas, 45.5x45.5cm
- 35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Always and Forever), 2022, oil on canvas, 80.3x130cm
- 36 당신이 여기 있기를 (Wish You Were Here), 2022, oil on canvas, 80.3x130cm
- 37 블루 시퀀스 I-IV (The Blue Sequence I-IV), 2022, oil on canvas, 80.3x100cm ea.